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6권 제2호
Korean J of Childcare & Education
https://doi.org/10.14698/jkcce.2020.16.02.161 2020, Vol. 16, No. 2, pp. 161-17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온정적 양육행동 및 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s and Controlling Parenting Behaviors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박남심[1] 송승민[2] 엄희경[3]

Nam-Shim Park[1] Seung-Min Song[2] Hee-Kyung Um[3]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s and controlling parenting behaviors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Methods: A total of 1515 mothers of young children(780 boys, 735 girls), who had participated in wave 7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answered the questionnaires. The questionnaires included items about mothers'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s, and their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s using SPSS 23 and AMOS 22.
Result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lso, there was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s and controlling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Second, mothers' parenting stress showed a direct negative effect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ird,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s and controlling parenting behaviors showed partial mediating rol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onclusion/Implications: In order to develop positive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programs and social support are needed to reduce mothers'parenting stress and induce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key words mother's parenting stress, mother's warm parenting behavior, mother's controlling parenting behavior, social competence

[1] **제1저자**
수호천사공동직장어린이집 원장

[2] **교신저자**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e-mail : smsong@suwon.ac.kr)

[3] **공동저자**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박사과정

Ⅰ. 서 론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이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Denham, 2006), 유아가 단체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또래와 순조로운 관계를 맺으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무난하게 적응하는 능력을 말한다(McCay & Deyes, 2001).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정서조절, 기질, 대인관계 및 규칙에 대한 이해와 준수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이루어진 다면적 개념으로(이혜원, 양옥승, 2006), 타인과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Raver & Zigler, 1997). 사회적 유능감이 높은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긍정적이며, 사회성 발달은 물론 정서발달과 인지발달 역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Arnold, Kupersmidt, Vodgler-Lee, & Marshall, 2012; McClelland & Morrison, 2003). 또한 자신과 또래의 감정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감정조절이 용이하고 또래에게 먼저 말을 거는 등 또래와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져 놀이 활동에 잘 참여하게 된다(이지영, 고보선, 최진아, 성지현, 2018). 반면 사회적 유능감이 낮은 유아는 타인이 수용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므로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분노와 외로움의 정서를 경험하게 되어 자존감은 낮아지고 문제행동은 증가하게 된다(Webster-Stratton & Reid, 2004).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지속될 때 이후 삶에 부적응적 행동이 나타날 위험성이 증가하게 되는데(Crick, 1996), 이는 사회적 유능감이 누적되어 발달 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최윤희, 문혁준, 2018). 즉, 유아기에 형성된 사회적 유능감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Odom, McConnell, & Brown, 2008).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게 되는데(박경자, 김송이, 신나리, 권연희, 김지현, 2017), 생애 초기 유아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주연, 최영희, 황리라, 박남심, 2019). 박주연 등(2019)은 어머니의 합리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활동성을 증가시키고 안정성을 가져와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독려함으로써 사회성 증진에 기여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일관된 양육행동은 유아가 또래와 사회관계를 맺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장점을 또래에게 잘 전달하여 친구를 쉽게 사귀며 또래로부터 더 높은 인기를 누리게 하였다(송주연, 이선영, 2017). 또한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거부-통제적이고 일관성 없는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조부월, 2009; 최윤희, 문혁준, 2018; Hosokawa & Katsura, 2017).

이처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옥경희(2019)는 크게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으로 분류하였다. 온정적 양육행동은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 자녀 양육을 기쁘게 수행하며 자녀와 높은 의사소통 수준을 가지고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양육행동을 의미하며, 통제적 양육행동은 부모의 기대와 규칙에 따르도록 자녀를 지도하고 훈육하며 부정적 행동을 규제하는 양육행동을 의미한다(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 1999). 특히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하여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교성과 친사회성 및 주도성을 증진시키며(김순이, 서호찬, 2016), 사회적 유능감 향상에 필요한 인지적,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rtup, 1983). 반면 통제적 양육행동은 사회

적 유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함께(최윤희, 문혁준, 2018; 홍종원, 최영희, 2015) 사회적 유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임성실, 이정미, 김영희, 2010), 유아의 인기도와 부적 상관이 있다는 보고(양혜련, 2000)가 있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이인성, 이상희, 2009) 있어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통제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들이 일관적이지 않다. 따라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단일 차원이 아닌 복합적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병행하여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고 있어(Aunola & Nurmi, 2005),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병행하여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내용을 살펴볼 때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Belsky, 1984).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이희연, 김경숙, 이미나, 2018)이나 정서조절(하유미, 박성연, 2012), 자아존중감과 양육스트레스(한준아, 2019)등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Abidin(1990)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 가운데 양육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에게 짜증을 자주 내거나 체벌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게 되며(이영미, 2009),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Crnic, Gaze, & Hoffman, 2005),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Simons, Beaman, Conger, & Chao, 1993).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Anthony et al., 2005), 거부적이고 충동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uchman & Luthar, 2001). 이들은 유아를 양육함으로 인해 자신의 계획이 변경되고 개인적인 자유가 구속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서 자녀 양육에 수동적이며, 유아를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방임하는 경향을 보였다(안지영, 2001).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자녀의 기질로 인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자녀의 학업과 관련한 스트레스로 인해 어머니는 양육에 부담을 갖게 되며 이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성 위축에 영향을 미쳤으며, 유아의 불안을 증가시키고, 성취동기와 호기심은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영애, 2005). 특히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가운데 유아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정순자(2007)의 연구를 볼 때 유아와의 긍정적 관계가 유지될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유아와의 긍정적 관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고 이는 다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송민영(2018)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향상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에 관련성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세 변인 간의 관계를 동시에 살펴본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특히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효과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류관열(2012) 및 류다형과 이순형(2016)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살펴보고 있으나, 대구시나 농촌 지역 결혼이민자로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만을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의 모형과 유사한 연구는 ADHD 아동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신연희, 정현희, 최성열, 2010)에서 찾을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은 ADHD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때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양육스트레스와 ADHD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였다(신연희 등, 2010).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연구결과를 유아와 어머니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유아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고려하여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병행하여 살펴보고자 한다(Aunola & Nurmi, 2005).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 및 통제적 양육행동이 어떠한 경로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세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온정적 양육행동 및 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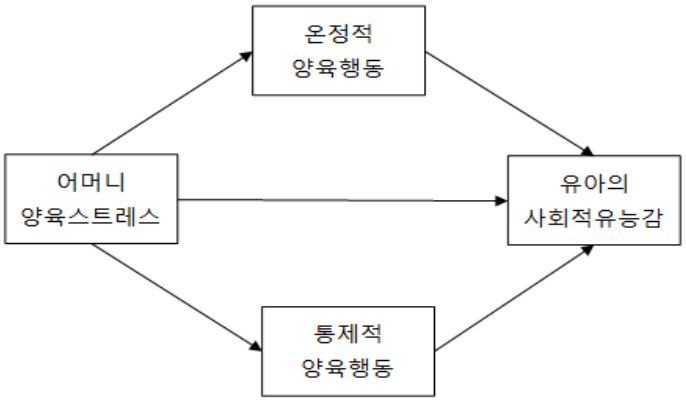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PSKC) 7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는 층화 표본추출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8년도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으며, 비례 배정법을 사용하여 표본의 임의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장명림, 신나리, 박수연, 2006). 본 연구는 사회적 유능감의 결정적 시기인(양은호, 2012)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어머니 보고로 작성된 설문 1,515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유아의 경우 남아 780명(51.5%), 여아 735명(48.5%)였으며, 월령은 평균 75개월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연령은 평균 37세였으며, 학력은 대졸이 568명(37.5%), 취업 여부는 전업모가 814명(53.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2. 연구도구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 스트레스'를 발췌하여 한국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총 11문항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 Cronbach's α는 .88이었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조복희 등(1999)의 양육행동 척도를 참고로 한국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작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총 12문항으로 온정적 양육행동(6문항), 통제적 양육행동(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부하량을 살펴본 결과 통제적 양육행동 6번 문항 '아이가 짜증 내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다'의 요인부하량이 .20으로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제적 양육행동의 6번 문항을 삭제한 후 5문항을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하위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온정적 양육행동은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 '아이와 이야기해주고 놀아준다'등이, 통제적 양육행동은 '나는 가정교육을 위해 아이의 행동을 제한한다', '나는 지켜야 할 규칙, 규율을 세우고 아이가 지키도록 한다'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양육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온정적 양육행동 Cronbach's α는 .86, 통제적 양육행동 Cronbach's α는 .72이었다.

3)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은 서미옥(2004)의 아동용 사회적 기술척도(K-SSRS)를 한국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총 32문항으로 주장성(11문항), 협력성(6문항), 자기통제(7문항), 책임성(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장성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한다', '자신의 집에 다른 사람을 초대한다'등이, 협력성은 '자발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일을 돕는다', '지시가 없어도 자신의 방을 청소한다'등이, 자기통제는 '가족 구성원의 물건을 사용하기 전에 허락을 얻는다', '다른 사람과 게임을 할 때 규칙을 지킨다'등이, 책임성은 '친구나 형제에게 감사를 표현한다', '다른 아이와 다툴 때, 감정을 잘 처리한다'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3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1점)', '가끔 그렇다(2점)', ' 매우 자주 그렇다(3점)'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유능감 전체 Cronbach's α는 .93이며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주장성 .85, 협력성 .81, 자기통제 .80, 책임성. 78이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한국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 데이터 1,515부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3과 AMOS 2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성 간의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병렬다중매개모형(parallel multiple mediator model)을 사용하였다. 관측 모형의 적합도를 위해 X^2, NFI. TFI, CFI, RMSEA 값을 제시하였고,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매개 변수는 2개이므로 특정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를 살펴보기 위해 팬덤변수(phantom variable)를 사용하였다. 이때 표준화 계수는 유의도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비표준화 계수를 사용하였다(배병렬, 2017; Hayes, 2013).

Ⅲ.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표 1). 그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 협력성, 책임성, 자기통제, 주장성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 때 온정적 양육행동, 협력성, 책임성, 자기통제, 주장성이 저하된다는 의미이

다. 온정적 양육행동 및 통제적 양육행동은 협력성, 책임성, 자기통제, 주장성과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온정적 양육행동 및 통제적 양육행동이 높을 때 협력성, 책임성, 자기통제, 주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온정적 양육행동이 통제적 양육행동보다 다소 높은 상관을 보고한 것을 볼 때 유아를 편안하고 느긋하게 대해주는 것이 행동을 제한하는 것에 비해 사회적 유능감과 더 높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하위요인 간에도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매개 변인의 효과를 볼 때 변인 간에 상관이 전제조건이나(Baron & Kenny, 1986), Hayes(2013)는 변인 간의 상관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Hayes(2013)의 제언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통제적 양육행동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여 특정 간접 매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 (N = 1,515)

구분	1	2	3	4	5	6	7
양육스트레스	-						
양육행동							
온정적양육행동	-.55***	-					
통제적양육행동	.05	.12***	-				
사회적 유능감							
협력성	-.20***	.26***	.11***	-			
책임성	-.29***	.36***	.11***	.58***	-		
자기통제	-.27***	.34***	.12***	.53***	.70***	-	
주장성	-.20***	.28***	.13***	.47***	.71***	.62***	-
M	2.57	3.64	3.46	2.52	2.01	2.52	2.37
SD	.61	.53	.48	.36	.40	.33	.36
최소값	1.00	1.50	1.50	1.29	1.00	1.13	1.18
최대값	4.73	5.00	5.00	3.00	3.00	3.00	3.00

***p < .001.

2. 측정모형 분석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측정 변인 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초기 모델을 살펴본 결과 X^2 = 2947.97(df = 318, p < .001), X^2/df = 9.27, NFI = .84, TLI = .84, CFI = .85, RMSEA = 07로 나타났다. 적절한 적합도는 NFI, TLI, CFI값이 .90 이상 RMSEA값은 .08 이하이나(홍세희, 2000), 초기 모델은 적절한 적합도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표 2). 적절한 적합도 수준을 위해 측정오차 간 상관이 높은 경우 수정지수 값이 높은 오차항간의 공분산 설정이 가능하다(김계수, 2010). 본 연구에서는 b1와 b2의 관계(MI = 439.81), b4와 b7의 관계(MI = 200.77), b9와 b10(MI = 129.28), e1과 e3의 관계(MI = 98.62), e5와 e6의 관계(M = 82.45), a3과 a5(MI = 75.12)관계에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X^2 = 1796.49(df = 312, p < .001), X^2/df = 5.76, NFI = .90, TLI = .91,

CFI = .92, RMSEA = 06으로 적절한 적합도 수준을 나타내었다(수정모델 1).

표 2.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델	X^2	*df*	X^2/df	NFI	TLI	CFI	RMSEA
초기모델	2947.97***	318	9.27	.84	.84	.85	.07
수정모델1	1796.49***	312	5.76	.90	.91	.92	.06
수정모델2	1591.75***	288	5.53	.91	.92	.93	.05

*** $p < .001$.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인부하량이 .40 이상어야 하는데(송지준, 2015), 통제적 양육행동의 m_cb6 항목의 요인부하량이 .20로 측정변수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m_cb6 항목 '나는 아이가 짜증내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다'의 문항을 삭제한 후 적합도를 다시 살펴보았다(수정모델 2). 그 결과 측정변수의 잠재변수 요인부하량이 .40～.78로 적절한 수준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적합도 역시 X^2 = 1591.75(*df* = 288, *p*<.001), X^2/df = 5.53, NFI = .91, TLI = .92, CFI = .93, RMSEA = 05로 나타나 수정모델 2를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종 연구모형의 요인적재량은 다음과 같다(표 3).

표 3. 최종 연구 모형의 요인적재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B*	β	SE	C.R
양육스트레스	m_st1	1.00	.77	-	-
	m_st2	.99	.78	.02	55.94***
	m_st3	.99	.72	.04	27.98***
	m_st4	.81	.64	.03	24.45***
	m_st5	.89	.72	.03	27.91***
	m_st6	.75	.51	.04	19.28***
	m_st7	.76	.61	.03	23.36***
	m_st8	.56	.40	.04	13.58***
	m_st9	.73	.61	.04	23.39***
	m_st10	.73	.57	.03	21.71***
	m_st11	.79	.56	.04	21.06***
온정적양육행동	m_wb1	1.00	.72	-	-
	m_wb2	1.00	.62	.04	27.46***
	m_wb3	1.07	.70	.03	32.86***
	m_wb4	.98	.65	.05	22.03***
	m_wb5	.88	.72	.04	24.37***
	m_wb6	.80	.71	.04	22.60***
통제적양육행동	m_cb1	1.00	.72	-	-
	m_cb2	1.04	.71	.05	21.02***
	m_cb3	.65	.43	.05	13.88***
	m_cb4	.84	.63	.04	19.56***
	m_cb5	.72	.52	.04	16.75***

표 3. 계속

잠재변수	측정변수	*B*	β	SE	C.R
사회적유능감	자기통제	1.00	.79	-	-
	협력성	.92	.64	.04	25.43***
	책임성	1.05	.90	.03	36.44***
	주장성	1.00	.78	.03	32.09***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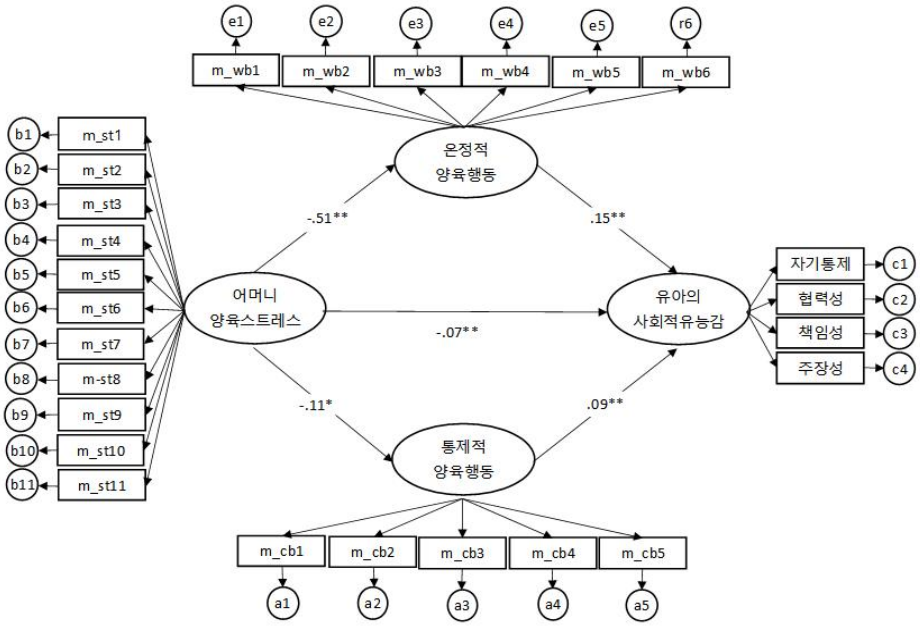

그림 2. 최종경로모형

3. 구조모형 분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매개 변인이 2개 이상이므로 병렬다중매개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AMOS는 다중매개모형의 경우 전체 간접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별 간접효과를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배병렬, 2017). 이에 본 연구는 팬덤변수(Phantom variable)를 사용하여 개별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모형 분석에 앞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매개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다(표 4). 그 결과, X^2 = 1591.75(df = 288, $p < .001$), X^2/df = 5.53,

NFI = .91, TLI = .92, CFI = .93 RMSEA = .05로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절한 적합도 수준을 나타내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잠재변수 경로 추정치

잠재변수경로			*B*	β	SE	C.R
양육스트레스	→	온정적양육행동	-.51	-.67	.03	-20.32***
양육스트레스	→	통제적양육행동	-.11	-.15	.02	-4.84***
양육스트레스	→	사회적유능성	-.07	-.16	.02	-3.96***
온정적양육행동	→	사회적유능성	.15	.27	.02	6.42***
통제적양육행동	→	사회적유능성	.09	.16	.02	5.47***

***p < .001.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살펴보았다(표 5).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 변인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 및 통제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비교해본 결과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통제적 양육행동 역시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유의하였다. 그리고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팬덤변수를 사용하여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 온정적 양육행동 → 사회적 유능감의 간접효과는(B = -.07, p < .01) 유의하였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 통제적 양육행동 → 사회적 유능감의 간접효과(B = -.01, p < .01) 역시 유의하였으며, 온정적 양육행동이 통제적 양육행동보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소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의 효과분해 (N = 1,515)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양육스트레스	→	사회적 유능감	-0.07**	-0.08**	-0.15*	
온정적 양육행동	→	사회적 유능감	0.15*	-	0.15*	0.20*
통제적 양육행동	→	사회적 유능감	0.09**	-	0.09**	
양육스트레스	→	온정적 양육행동	-0.51**	-	-0.51**	0.45*
양육스트레스	→	통제적 양육행동	-0.11*	-	-0.11*	0.02*

*p < .05, **p < .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어떠한 경로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김현미, 도현심, 2004; 문혜련, 1999; 송민영, 2018; 정순자, 2007; Abidin, 1990 ; Crnic & Greenberg, 1990)은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어머니와 유아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정순자(2007)의 연구결과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준다는 권연희(2010)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최옥주(2016)는 종단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부정적이며,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법과 스스로 스트레스에서 회복되는 탄력성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가족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온정적 양육행동 및 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조모형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온정적 양육행동을 통해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온정적으로 양육하고, 이러한 어머니의 자녀는 사회적 유능감도 높았다. 즉,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할수록 온정적 양육행동이 증가하여 자녀에게 보다 따뜻하고 일관된 양육을 하게 되며, 이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향상으로 이어져서 스스로 과제를 처리하고 또래와의 관계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우울과 자아효능감 같은 심리적 특성이 긍정적 양육태도를 매개로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장혜림(2012)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조부월, 2009; 최윤희, 문혁준, 2018; Hosokawa & Katsura, 2017)과 유사한 결과이다. 어머니의 합리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활동성을 증가시키며 안정성을 가져와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사회성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고한 박주연 등(2019)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유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온정적 양육행동을 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육아지원 및 보육정책이 수립되어야겠다. 즉, 온정적 양육행동을 증가시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지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가족자원으로 해결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육아를 위한 휴가제도를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이 필요하며,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활성화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육아지원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해 사회적 유능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자녀의 교육을 위해 자녀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규칙을 지키도록 지도하는 통제적 양육행동을 함으로써,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이 증진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에서도 통제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최윤희, 문혁준, 2018; 홍종원, 최영희, 2015)을 지지한다. 또한 어머니가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나타낼수록 유아의 사회적 기술이 향상된다는 송소아(2019)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정서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제한적이며 일관적인 태도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또래 사회에 잘 수용된다는 Perlman과 Ross(2005)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며, 온정적 양육방식 뿐만 아니라 자녀의 행동에 적절한 통제로 한계를 설정해주는 양육행동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반응적이라는 선행연구들(임연진, 2002; 임현주, 2018)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적절한 통제적 양육행동으로 잘못된 행동을 제재하며, 규칙과 규율을 지키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양육행동을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 분석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 자녀의 행동을 제한시키는 일관되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제적 양육행동이 지나치게 엄격한 양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제한설정 및 일관된 양육에 대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경로 분석을 종합하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해서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적절히 이루어져 자녀를 긍정적으로 양육하게 되고, 이러한 어머니의 자녀는 사회적 유능감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또 본 연구에서는 온정적 양육행동이 통제적 양육행동보다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안정적이고 온정적이며 애정적일수록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김현주(2009)의 연구와 일치하며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에 있어 자녀와 친밀한 시간을 갖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할수록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제적 양육행동도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 효과가 있다는 남미예(2017)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이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는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어머니의 낮은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높은 사회적 유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높은 스트레스는 심리적 우울을 증가시켜 자녀에게 관심을 철회하는 등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하게 되고(Simons et al., 199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공격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낸다는 연구들(김대웅, 박윤현, 2018; 김미

숙, 2005; 안지영, 2001; 이영미, 2009; Anthony et al., 2005; Suchman & Luthar, 2001)을 통해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부정적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부모들의 교육 요구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김소영, 2008) 양육과 건강, 아동발달, 가정에서의 부모역할, 부모의 정신건강, 부모와 아동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방안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개별화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면, 자녀에 대한 이해와 양육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방법 등을 알게 되고, 나아가 긍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다양한 양육지원 방안과 정책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며,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은 부분 매개 역할을 하였다.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어머니가 긍정적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주민센터 등 접근이 용이한 장소를 활용하고 장소의 제약이 없는 미디어를 활용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개별성이 강한 유아의 특성을 감안 할 때 일방적으로 소통하는 부모교육보다는 소그룹이나 일대일 상담을 통한 양육 컨설팅, 양육코칭 등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을 병행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에는 두 가지 변인 외에도 다양한 양육행동의 요인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다양한 양육행동을 조사하여 폭넓은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어머니와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할 수 있는 패널 자료를 통해 영아기 부터 유아기를 통해 아동기까지 사회적 유능감의 발달 변화에 대한 추적연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녀의 발달 단계에서의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폭넓게 이해하고 시기에 맞는 다양한 발달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온정적 양육행동 및 통제적 양육행동의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본 연구가 드문 상황에서 네 가지 변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온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일관된 보고들과 달리 통제적 양육행동에 대한 보고들은 일관적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통제적 양육행동을 통해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가 안정적이며 양육스트레스가 낮을 때 온정적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유아기에 적절한 통제로 한계를 설정해주는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행동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대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비롯하여 온정적 양육행동과 통제적 양육행동이 모두 영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포함한 건강한 유아 발달을 목표로 하는 기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더 나아가 부모 상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권연희 (2010). 아동의 기질,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정서표현 행동의 매개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61**, 257-280.

김기현, 강희경 (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김계수 (2010). **AMOS 18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김대웅, 박윤현 (2018).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온정적 양육행동, 유아 전자매체 이용시간,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 성별 다집단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3**(6), 135-156. doi:10.20437/KOAECE23-6-06

김미숙 (20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기와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소영 (2008).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부모교육 요구와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순이, 서호찬 (2016).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부모의 양육행동, 아동의 공감과 정서조절 능력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뇌교육연구**, **18**, 93-115.

김현미, 도현심 (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김현주 (2009). 학령후기 아동의 어머니 애착과 아버지 애착 및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미예 (201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효과와 어머니의 취업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류관열 (201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 **아동교육**, **21**(3), 231-240.

류다형, 이순형 (2016). 농촌 지역 결혼이민자 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행동,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일반가정과 비교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1**(2), 107-131. doi:10.20437/KOAECE21-2-05

문혜련 (1999). 어머니의 사회적지지 체계와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주연, 최영희, 황리라, 박남심 (2019).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사회성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매개 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2**(1), 1-19. doi:10.17641/KAPT.22.1.1

배병렬 (2017). **AMOS 24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청람.

서미옥 (2004). 한국판 취학 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척도(K-SSRS: 교사 평정용, 부모 평정용)의 타

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223-242.

송민영 (2018).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가족 상호작용,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10**(1), 139-162.

송소아 (2019).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과 유아의 사회적 기술 및 유아의 학교 준비도의 구조적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주연, 이선영 (2017). 또래 놀이 행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역할: 사회적 기술의 매개 효과. **유아교육연구**, **37**(5), 507-531. doi:10.18023/kjece.2017.37.5.022

송지준 (2015).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경기도: 21세기사.

신연희, 정현희, 최성열 (2010). 아동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증상,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및 자기 유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아동교육**, **19**(3), 143-158.

안지영 (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은호 (2012).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혜련 (2000).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인기도와 사회적 문제해결행동.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옥경희 (2019). 부모의 양육행동 유형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연구. **인문사회21**, **10**(3), 603-616. doi:10.22143/HSS21.10.3.43

이영미 (200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애정 및 거부적 양육행동에 따른 남녀 유아의 자기조절. **가족과 문화**, **21**(4), 41-61. doi:10.21478/family.21.4.200912.003

이인성, 이상희 (2009).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아동교육**, **18**(3), 177-189.

이지영, 고보선, 최진아, 성지현 (2018).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과 온정적 양육행동, 5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및 또래 놀이 행동 간의 구조모형 분석. **유아교육연구**, **38**(2), 501-527. doi:10.18023/kjece.2018.38.2.020

이혜원, 양옥승 (2006). 교사용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평가척도 개발 연구. **유아교육연구**, **26**(2), 69-92.

이희연, 김경숙, 이미나 (2018).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 양육스트레스의 매개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4), 109-126. doi:10.22251/jlcci.2018.18.109

임성실, 이정미, 김영희 (2010). 어머니의 양육 태도와 유아의 정서조절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2), 143-157.

임연진 (2002). 어머니의 양육 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또래 유능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1), 113-124.

임현주 (2018). 유아 변인, 가족 간 상호작용, 양육 변인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5**(1), 183-206. doi:10.22155/JFECE.25.1.183.206

장명림, 신나리, 박수연 (2006). **아동 패널조사 모형개발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장혜림 (2012). 빈곤 가정 한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영유아의 언어·사회성 발달 간 관계: 한부모 양육 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3), 67-97. doi:10.16999/kasws.2012.43.3.67

정순자 (2007).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영애 (2005). 농촌 지역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취학전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2), 75-91.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 (1999). 한국 부모의 자녀 양육방식에서의 차원과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37**(10), 123-133.

조부월 (2009). 부모의 양육 태도 유형과 일치유형 및 일치 여부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비교.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3**(4), 93-119.

최옥주 (201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유아 사회성 간의 종단연구. **유아교육연구**, **36**(3), 127-149. doi:10.18023/kjece.2016.36.3.006

최윤희, 문혁준 (2018).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7), 221-228. doi:10.5392/JKCA.2018.18.07.221

하유미, 박성연 (2012). 어머니의 성인 애착, 부정 정서 및 정서조절 양식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2), 175-195.

한준아 (2019).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정서 표현성,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3), 589-609. doi:10.22251/jlcci.2019.19.13.589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9**(1), 161-177.

홍종원, 최영희 (2015). 어머니의 양육 태도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 발달의 관계연구. **상담심리교육복지**, **2**(2), 81-94.

Abidin, R. R. (199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The stresses of parenting.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4), 298-301. doi:10.1207/s15374424jccp1904_1

Anthony, L. G., Anthony, B. J., Glanvile, D. N., Naiman, D. Q., Waanders, C., & Shaffer, S.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preschoolers'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s in the classroom.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33-154. doi:10.1002/icd.385

Arnold, D. H., Kupersmidt, J. B., Voegler-Lee, M. E., & Marshall, N. A. (2012). The association between preschool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and their emergent academic skills. *Early Child Research Quarterly, 27*(3), 376-386. doi:10.1016/j.ecresq.2011.12.009

Aunola, K., & Nurmi, J. E. (2005). The role of parenting styles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6), 1144-1159. doi:10.1111/j.1467-8624.2005.00840.x-i1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doi:10.1037/0022-3514.51.6.1173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doi:10.2307/1129836

Cr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5), 2317-2327. doi:10.1111/j.1467-8624.1996.tb01859.x

Crnic, K. A., Gaze, C., & Hoffmam, C. (2005). Cumulative parenting stress across the preschool period: Relations to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behavior at age 5.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17-132. doi:10.1002/icd.384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5), 1628-1637. doi:10.2307/1130770

Denham, S. A. (2006). Social-emotional competence as support for school readiness: What is it and how de we assess it?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7*(1), 57-89. doi:10.1207/s15566935eed1701_4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103-198). New York: Wiley.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Hosokawa, R., & Katsura, T. (2017). A longitudinal study of socioeconomic status, family processes, and child adjustment from preschool until early elementary school: The role of social competence.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tal Health*, *11*(1), 1-28. doi:10.1186/s13034-017-0206-z

Kostelnik, M. J., Soderman, A. K., Whiren, A. P., Rupiper, M. L., & Gregory, K. M. (2017).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 learning, 8th edition.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 교육(**박경자, 김송이, 신나리, 권연희, 김지현 옮김). 경기: 교문사(원판 2015).

McCay, L. O., & Deyes, D. W. (2001). Developing social competence in the inclusive primary classroom. *Childhood Education*, *78*(2), 70-78. doi:10.1080/00094056.2002.10522707

McClelland, M. M., & Morrison, F. J. (2003). The emergence of learning-related social skills in preschool childr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8*(2), 206-224. doi:10.1016/S0885-2006(03)00026-7

Perlman, M., & Ross, H. S. (2005). If-then contingencies in children's sibling conflicts. *Merrill-Palmer Quarterly, 51*(1), 42-66. doi:10.1353/mpq.2005.0007

Odom, S. L., McConnell, S. R., & Brown, W. H. (2008). Social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influences. In W. H. Brown, S. L. Odom, & S. R. McConnell (Eds.), *Social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Risk, disability, and intervention* (pp. 3-29). Towsou, WA: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Inc.

Raver, C. C., & Zigler, E. F. (1997). Social competence: An untapped dimension in evaluating head start's succes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4), 363-385. doi:10.1016/S0885-2006(97)90017-X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1993). Stress, support, and antisocial behavior

trait as determinants of emotional well-being and parenting practices among single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2), 385-398. doi:10.2307/352809

Suchman, N. E., & Luthar, S. S. (2001).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stress in methadone-maintained mothers' parenting.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4), 285-315. doi:10.1207/S15327922PAR0104_2

Webster-Stratton, C., & Reid, M. J. (2004). Strengthening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in young children-The foundation for early school readiness and success; Incredible years classroom social skills and problem-solving curriculum. *Infants and Young Children*, *17*(2), 96-113. doi:10.1097/00001163-200404000-00002

논 문 투 고 : 20.02.15
수정원고접수 : 20.03.13
최종게재결정 : 20.04.13